

민간공원 1단계 대상 4곳 시민심사단 30명 구성 합의

(송암·마륵·수랑·봉산공원)

광주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 다소 지연될 듯

나머지 21곳 실태조사 후 공원 해제·보존 등 재논의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대상 송암·마륵·수랑·봉산공원의 심사를 맡을 시민심사단 규모를 3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1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공원 해제, 보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 등을 재논의한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오는 2020년 하반기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토지소유주, 공

원 주변 주민,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광주형 도시공원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11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시민심사단 규모는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하고 추천과 공모를 혼합한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추천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환경·경제단체, 여

성·장애인 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모는 대상 공원이 자리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주민자치센터가 평가단 참가희망자를 접수해 시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민심사단은 3배수인 90명을 모아 추천을 통해 심사당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평가위원단은 조정분야 1인을 추가해 14명이 됐다.

시는 추천, 공모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초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1단계 심사 및 우선협상자 선정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1단계 대상 공원 4곳을 제외한 중앙·일곡·중외 등 나머지 21개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실태조사 후 공원 해제, 보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용 등의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지난 8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거버넌스 공원조성소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21개 도시공원에 대해 기초조사 후 민간

거버넌스 전체 회의에서 21개 공원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시는 당초 지난달 29일 1단계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심사단의 규모와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자 윤장현 광주시장이 심사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은 지난 7월부터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해 대책을 숙의한 후 지난 8월 광주시 관련 실·국과 민간거버넌스를 구성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관련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모여 논의하는 장인 민간거버넌스는 몇 차례의 마찰과 갈등이 있었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좀 더디더라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이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광주형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크리스마스트리에 소망 카드 매달기 11일 광주시 북구청 1층 로비에서 중흥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북구청 청년간부회 등 직원들이 소망을 적은 카드를 크리스마스트리와 썰매에 매달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남구 도시첨단산단 25필지 분양

광주도시공사는 11일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의 종사자들과 기업편익을 위한 산업시설용지·상업시설용지·주차장용지를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주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LS산전 등 관련 연구소와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스마트 그리드, 전력저장·변환 시스템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

한 첨단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분양대상 용지는 상업용지 22필지, 주차장용지 3필지로서 분양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일반인 누구나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를 참고하거나 분양팀(062-600-66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바퀴' 이용객 3만 돌파

960회 운행 ... 섬 코스 인기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3만명을 돌파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21개 코스를 누빈 '남도 한 바퀴'는 지난 10일까지 올해 계획된 960회 운행을 모두 마쳤다. 이용객은 모두 3만983명으로, 버스 1대당 평균 32.3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평균 승객(21.7명)보다 48.8% 늘었다. '남도 한 바퀴'는 지난 2014년 5월 운행을 시작한 뒤 탑승객 유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평균 2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평균 30명, 전체 3만명을 돌파했다.

섬 코스 개발·확대가 큰 요인인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지난해까지 여수 금오도 1개 코스를 운영하던 것을 올해 들어 고흥 연흥도, 거금도 유람선,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코스를 추가했다. 총 223회 운행된 섬 코스는 8824명이 이용해 45인승 버스에 평균 39명이 탑승했다. 또 관광객들의 음식점 이용, 해산물 등 특산물 구매로 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했다.

테마 코스로 처음 운행한 아경코스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총 4개 코스를 73회 운행해 총 2393명, 1대당 32.8명이 이용했다. 오후 1시 이후 출발하는 아경코스는 다른 시·도 관광객과 젊은층을 사로잡았다. 별도 꼬막거리·영암 낙지음식거리 등 음식 특화거리와 야시장을 연계한 코스도 인기를 얻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부담 ↓ 학업 성취 ↑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 신청기간
11월 17일(금) 9시 ~ 12월 12일(화)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11월 17일(금) 9시 ~ 12월 15일(금) 18시
▶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신청 필요(단, 기존 정보제공자 및 가구원 추가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상단메뉴)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가구원 동의 가능(미혼의 경우 부·모, 기혼의 경우 배우자)

■ 신청문의 1599-2000

■ 신청대상
국내대학 재학생 및 복학생, 신·편입학생, 재입학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제출 방법 : 신청 익일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신청현황 > 제출서류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광주시정 '긍정적 평가' 42%... 6대 광역시 중 2위

리얼미터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

광주시가 국회 역대 최고액 확보, 에너지밸리 특별법 국회 통과, 친환경자동차 사업 본격 추진, 광주형 일자리 정착 등 최근 굵직한 성과를 내놓으면서 여론조사기관의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선 6기 초반 다소 인색했던 시민들의 평가가 서서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시는 해석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1월 '11월 정례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에서도 '긍정적 평가'에서 민선 6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6대 광역시 중 울산이 48.3%로 0.5%p 내렸으나 1위를 유지한 가운데 광주가 3.1%p 오른 42.0%로 대전을 밀어내고 2위로 상승했다.

광주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2%, 부정적 평가는 38.9%로, 매달 진행되고 있는 이 기관의 평가

에서 광주시가 광역시 2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에너지신산업 등 광주의 미래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3대 밸리 조성사업, 광주형 일자리, 직접민주주의 모델의 적용 등 광주의 새로운 시도가 이제서야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광주의 시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던 전남도는 0.8% 포인트 상승해 54.2%를 기록,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시도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2%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종식 광주시경제부시장 14일 퇴임... 내년 목포시장 도전

김종식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목포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오는 14일 사퇴한다.

김 부시장은 11일 기자들을 만나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동료 공직자 여러분,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오래 고민 끝에 경제부시장직을 내려 놓는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경제부시장 원서를 접수하는 등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김 부시장은 이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영광이고 보람이었다"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민과 여러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면 반드시 밝은 광주의 미래, 광주의 시간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시장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2의 고향인 목포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목포의 변화, 목포의 재탄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김 경제부시장은 행정고시(24회) 출신으로 민선 3~5기 완도군수, 목포시 부시장, 신안군 부군수, 영암군 부군수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